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를 통해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의 소망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셋째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1 - 대림절 소망의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 마태복음 24:44

새벽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경배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거룩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이른 시간에 주님의 집으로 나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연말을 맞이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남은 기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충성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2 - 성탄 준비의 기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23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12월 셋째 주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세상은 온통 들뜬 분위기이지만, 저희는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잊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장식과 선물보다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보내게 하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소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3 - 연말 감사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셋째 주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순탄한 날들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시간들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가 범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때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교만하고 게으른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4 - 새해 소망의 기도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예레미야 29:11

새로운 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과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달 셋째 주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와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품고 계신 선한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 저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저희가 직면하게 될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주시되, 무엇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재난, 질병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12월 셋째주 5 -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 로마서 12:1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셋째 주 새벽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성도들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분열되고 상처받은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께는 [새문안교회 새벽예배 영상] (<http://www.saemoonan.org/Board/ListTV.aspx?vodType=1>)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